

“신항 폐쇄 ... 대체 항구 조성해 달라”

2012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장승우)는 24일 오전 국회 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정부계획안 확정을 하루 앞둔 탓인지 변화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하며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다. 반면 국회 특위 위원들은 각종 요구사항을 쏟아내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자세를 촉구했다. 하지만, 정부계획안 확정을 하루 앞두고 열린 특위라고 하기에는 전면 회의 때와 비슷한 요구가 덧붙을 이르는 등 한가한 논의만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변경된 기본계획안=장 조직위원장은 이날 국회 보고에서 지난 9월 기본계획안 발표 이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상징조형물 설치 ▲아쿠아리움 재정 투입 ▲한국적 조형물 축출 설치 ▲주제관의 위치 변경 등의 주요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또 시설별 사후 활용 방안, 총사업비, 사전환경성 검토 등에 대해 국토해양부·기획재정부·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완료하고 25일 정부지원위원회 회의를 거쳐 정부 계획으로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

■ 국회 여수박람회 특위 3차회의

엑스포 타운 조기 완공 시행자 조속 선정

여수공항 활주로 확장사업 적극 추진해야

고 덧붙였다. 상징조형물 설치에 이미 언론에 보도<광주일보 11월 21일자 1면>된 대로 박람회장 중앙인 한국관 전면 수변 광장에 설치되며 구체적인 형태·기능·규모 등은 상징조형물 추진위원회를 구성과 현상공모 등을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해양생물 전시장인 아쿠아리움은 당초 전액 민자유치로 건설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었다. 하지만, 민자유치가 난항을 거듭하자 조직위원회는 일부 재정 보조를 받기로 했다. <대체항구 건설=박람회 전시장 건설로 연간 113만톤을 처리하는 여수신항 4개 부두의 시설 폐쇄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여수시에서는 대체 부두(접안시설)의 축조를 건의해왔다.

주객공사 측과 사업시행자 지정 협의를 이달말까지 완료, 보상을 거쳐 내년 7월까지 착공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 우윤근 의원과 주승용 의원,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예비타당성 결과에 의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여수공항 활주로 확장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람회 유치 1주년 기념

오늘 DJ센터서 세미나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1주년을 기념하는 국제세미나가 25일 광주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호남대 호남발전연구원 주최하는 이 세미나에서는 한류를 활용한 중국인 관광객 유치방안 등 4편의 주제논문이 발표되고 중국, 싱가포르, 대만, 일본, 말레이시아 등 5개국 대표와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토론회가 마련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도와 KAVO(F1대회 운영법인)가 공동 주최한 '제1회 코리아 F1 국제포럼'이 24일 서울 웨라타워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F1대회 개최 성공 기원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부터 하현철 이사, 안톤솔츠 조선대학교수, 원춘건 이사, 강인수 숙명여대교수, 크리스 웰치 KHP 이사, 톰 포터 영국 윌리엄스 F1팀 이사, 박준영 전남도지사, 김영록 국회의원(대회장), 김진영 광주일보사 사장, 유선호 국회의원, 염상용 오산대학교수, 원현근 이사. <전남도 제공>

“전남만이 아닌 국가 차원의 잔치

정부 지원·국민 관심 있어야 성공”

■ 코리아 F1 국제포럼서 전문가들 제안

전남도 KAVO(F1대회 운영법인)가 24일 서울 웨라타워 호텔에서 열린 '제1회 코리아 F1국제포럼'에서는 국내외 F1 및 모터스포츠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F1대회 성공 개최와 개최효과 극대화를 위한 참석자들의 다양한 제안이 쏟아졌다. 참석자들은 F1대회가 전남을 물론 대한민국의 브랜드를 한층 높일 수 있는 초대형 국제행사라는 데 뜻을 같이하는 한편,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국가적 지원과 국민적 관심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이들은 F1대회가 국민적인 축제나 아닌 전남지역 행사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대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언론을 통한 홍보를 극대화하고, 전남만의 잔치나 아닌 국가차원의 잔치라는 점을 집중 부각시켜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안톤 솔츠 조선대 교수는 '전남

지역과 대한민국의 경제적 발전과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F1은 수도권 이외의 낙후된 지역에 매력적인 삶의 공간을 조성함과 동시에 J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충추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한국정부의 미온적인 지원과 국민의 흥미 저하로 인한 지지부족 등의 위험요소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F1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확실한 이벤트이며, F1의 성공은 한국과 한국 기업의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최대행사 유치에 적합한 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국가 전체를 변화시키는 스포츠행사로서 기록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주제발표(F1대회 개최 성공조건)를 통해 "F1대회를 놓고 지방정부와 시민단체, 주민들이 이견을 보이면 충분한 예산·지출에 혼신이 빚어지고, 근시안적 계획과 단발성 홍보 위주의 프로그램이 남발

될 수 있다"고 현 시점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인프라 시설의 사후 활용방안 등 중장기 마스터플랜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특히 F1 대회가 열리는 11개월간의 경주장 활용도를 높이고 전국 주요 자동차 대회를 유치하고, 대회가 단조롭다는 특성을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레저 프로그램 마련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또 "중앙정부의 지원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연계 프로그램 및 네트워크 구축이 시급하며 국제단체와의 연계 강화, 학계의 지원을 통한 브레인망 구축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조언했다. 강인수 숙명여대 교수도 '자동차산업의 발전방안'이란 발표문에서 "F1대회는 제조업과 관광서비스산업이 결합된 2.5차의 새로운 산업 영역"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대기업 자동차 메이커의 모터스포츠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한 드라이버 양성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남약빌딩·울돌목 거북배

전남개발공사 방만 경영

24일 전남도의회에서 열린 전남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남약업무빌딩과 '울돌목 거북배' 운영 등 실익이 나오지 않는 사업과 방만한 경영에 대해 도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전남개발공사 내년 3월 준공할 예정인 남약업무빌딩이 제일 먼저 도마 위에 올랐다. 고택윤 의원은 "주민세금 254억원을 들인 남약업무빌딩의 분양·임대 실적이 전혀 없다"며 "건물만 세워놓고 들어 올 사람이 없는 빌딩을 어떻게 하겠느냐"며 개발공사를 집중 성토했다. 명랑대접축제를 계기로 제작된 유람선 '울돌목 거북배'의 적자운영에 따른 대책 마련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탁우 의원은 "46억원을 들여 건조한 울돌목 거북배 운영을 위해서는 매년 14억원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수지분석도 없이 일만 저질러 놓고 적자 보전 대책도 없다"고 충고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농업인학습 육성기금 조성

잘못된 자료 질의에 반축

전남도의회 일부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입맛'에 맞게 해석, 발표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남도의회 고송자(민노·비례) 의원은 24일 전남도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기술원이 지난 1997년부터 농업인학습단체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조성하고 있는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관리기금'의 조성 및 운용 실적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는 2014년까지 50억원의 기금을 마련, 농촌 지도자회·4·H회·생활개선회 등 농업인학습단체의 육성 등에 쓰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조성된 금액은 목표액의 32.2%인 16억1천200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이 고 의원 주장이다. 그러나 50억원의 기금 조성 계획은 당초 2011년까지 20억원을 조성기로 했던 것을 지난 7월 도의회의 제안에 따라 2014년까지 50억원으로 확대 조성하기로 변경했다는 점에서 고 의원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지적'을 위한 '지적'이라는 것이다. 2011년까지 목표액 20억원 대비, 조성률은 80.6% 수준에 이른다. /김지을기자 dok2000@

농민·지자체·생산단체 출자

'1시군 1유통회사' 개선 필요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고 농민소득을 높이기 위해 시행 중인 '1시군 1유통회사'의 개선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남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회 김철주 의원은 최근 전남도 농림식품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1시군 1유통회사에 대한 출자를 농민과 지자체 등이 분담하도록 한 것은 부실운영 시 이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초기자본금으로 30억 원 이상의 출자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농민과 지자체, 생산자 단체가 분담했다가 유통회사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을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농민과 지자체에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유통회사가 다루는 생산품목들이 다른 지역과 중복되는데, 이는 일선 시·군 간의 진흥탕싸움으로 이어지고 농산물 생산, 유통 과정에서 수급 차질은 물론 가격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이 빚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우려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SJ 투어몰 제주도의 모든것!!

제주패키지	자유여행	여니론	골프
<p>₩199,000</p> <p>1박2일 제주패키지</p> <p>1박2일 제주패키지</p>	<p>₩245,000</p> <p>신박여행</p> <p>신박여행</p>	<p>₩599,000</p> <p>11월 예약제</p> <p>11월 예약제</p>	<p>₩520,000</p> <p>1박2일 제주패키지</p> <p>1박2일 제주패키지</p>